

#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and friendship quality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배재현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보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Doctoral Course : Bae, Jae-Hy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Prof. : Choi, Bo-Ga*

##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and friendship quality. The 679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fifth and 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and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of middle schools.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peer victimization scale, friendship quality scale, friendship nominations measur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type of peer victimization h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There was no significant grade difference in prosocial behavior. 2) The type of friendship quality h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There were no significant grade difference in positive friendship and negative friendship. 3)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and friendship quality.

◆ key word: 청소년, 또래 괴롭힘, 우정의 질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최근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학교에서 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하지나 않는지 불안해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들을 위해서는 보호의 차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래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이라는 용어는 1990년을 전후하여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약 10%가 일상적으로 그들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더욱이 이러한 청소년 중의 많은 수가 또래들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공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괴롭힘이 매우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Boivin, Bukowski, Hedges, Vitaro, 1999).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또래 괴롭힘을 주제로 한 연구는 드물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또래 괴롭힘의 빈도나 발생 장소에 관한 연구(홍재선, 1996), 사회측정적 지위(이영미, 1989), 공격성(김종미, 1997), 외로움(도현심, 1998) 및 불안(임지영, 1998) 등과 같이 괴롭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로 다루고 있을 뿐, 문제의 근원 및 예방책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 경험뿐만 아니라 피해 경험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oulton & Underwood, 1992; 홍재선, 1996).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진, 1999). 그리고 또래 괴롭힘을 지각하는 유형에 따라서 보면, 신체적·직접적인 형태의 괴롭힘은 남학생이 우세한 반면 간접적·관계상의 괴롭힘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우세하였다(Crick et al., 1996; Olweus, 1994). 따라서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지각정도뿐만 아니라 유형간의 차이도 밝혀볼 필요가 있다.

학년에 따른 또래 괴롭힘을 보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또래 괴롭힘은 감소하고(Olweus, 1994) 점차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자료에서 중학생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 경험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순이었다(김동진, 1999).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중·고등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4.7%) 중 61.9%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괴롭힘을 당할 때 상담대상자로써 '친구나 선배'가 33.1%, '누구와도 상담 않는다'가 22.2%였으며, 또래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노력해야 할 방법으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한겨레신문, 1999). 이것은 또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써 또래와의 관계향상을 청소년 자신들도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하여 서로 협조와 지원, 지지를 주는 우정의 궁정적인 기능들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또래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우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적인 기능인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친한 친구를 가진 청소년이 또래 괴롭힘을 덜 당한다는 외국연구들(Hedges, Malone, & Perry, 1997; Kochenderfer & Ladd, 1997)을 보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친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의 질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중반부터 차츰 관심을 가져오기 시작한 분야로써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가출, 비행, 기타 범죄행동)과 관련시켜 연구되어 왔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박신연, 1989)가 주를 이루고, 친구 지각에 대한 연구(임정하, 1997), 교우관계 형성요인(심상문, 1992)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성별과 관련해서 보면, 친밀감을 지각하는 수준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Buhrmester & Furman, 1987; Hunter & Youniss, 1982)가 있는 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Sharabany, Gershoni., & Hofman, 1981)도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우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학년과 관련해서 보면,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정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 및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우정의 하위 요인인 친밀감(박신연, 1989), 우의(Buhrmester et al., 1987), 애정 및 지지(김미정, 1984) 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Buhrmester, 1990)도 있다. 또한 학년에 따른 안정성과 관련해서 볼 때, 우정의 정도 및 수준에 있어서 점차 강한 관계를 맺으나 개인적인 차원에 따라 다른 결과(Douvan & Adelson, 1966)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우정의 상호성과 관련해서 보면, 혼히 상호적인 우정관계는 단짝관계(chumship)라고 명명되는데, 일방적인 우정관계와 비교해서 공동활동, 긍정적 상대평가 및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놀이를 더 많이 하고 친구간의 공유지식도 더 많다. 또한 상호적 우정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 성숙된 조망능력을 보이고 유능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Howes, 1983)고 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심하게 거부되거나(Hodges et al., 1997)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Bukowski, Newcomb., & Hartup, 1996)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이는 모든 피해학생이 친구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소수의 친구 또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그들과 좀 더 친밀한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정의 발달이 시작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또래 괴롭힘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발달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친

한 친구를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 괴롭힘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더 많은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일시적인 또래 괴롭힘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또래 괴롭힘의 예방책으로써 우정의 중요성을 밝혀줄 것이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과 우정에 대한 미흡한 연구범위 및 평가방법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차후의 다양한 피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및 기타 연구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우정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3.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은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또래 괴롭힘

또래 괴롭힘은 피해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또래들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심리적인 고통에 노출되는 것(Olweus, 1994)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남학생은 주로 가시적인 직접적·물리적 행동을 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주로 간접적·심리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Roland, 1989). 그러나 박창한(1990)은 남학생이 물리적·언어적·간접적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반면에, Boulton과 Underwood(1992)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괴롭히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 유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영미(1989)의 연구에서도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학생은 학년의 증가와 상관 없이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피해학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급생에 의한 괴롭힘이 점차로 배제되기 때문에 괴롭힘의 비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Olweus(1994)는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의 평

균(11.3%)은 초등학교의 경우(10.7%)보다 약간 높고, 여학생의 경우는 그 반대로 초등학교의 경우(4.0%)가 중학교의 경우(2.5%)보다 더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이영미(1989)와 Boulton과 Underwood(1992)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또래에 의한 피해 정도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했다.

## 2. 우정의 질

또래관계가 비자발적인 2차적 집단으로 구성원들의 수가 많고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적다면, 우정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1차적 집단으로써 비교적 적은 구성원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보다 높다(Epstein,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에 대해 친밀감, 애정, 관심을 갖는 두 사람간에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정의 질을 정의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우정 평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특히 친밀감의 지각(Douvan & Adelson, 1966)에서는 여학생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Furman과 Buhrmester(1992)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관계에서 애정, 자아가치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였고 대립이나 처벌, 상대적 권력을 지각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임정하(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여학생이 우세하고, 우위는 남학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Berndt와 Perry(1986), Sharabany 등(1981)은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지각하는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령전기의 아동들은 연령, 성 및 비슷한 활동수준, 근접성이 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반면, 학령기가 되면서 점차 친구관계의 상호성이거나 깊은 감정 등을 공유한다. 또한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정관계내에서 개인의 성격과 흥미를 보다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Douvan & Adelson, 1966). 따라서 관계의 정도 및 내용면에 있어서 점차 더 안정된 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라 친밀감의 지각이 더 증가된다는 연구(박신연, 1989), 점차 감소된다는 연구(Buhrmester, 1990)도 있다.

## 3.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또래 괴롭힘의 피해 청소년이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전의 관계에서 이미 확립되었던 신뢰감, 믿음 등에 손상을 야기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과 학업적·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 또래와의 상호적인 관계가 부족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약 1/3 정도라고 하는데(Parker, Rubin, Price., & DeRoiser, 1995), 이들의 적용은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90년대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온 분야로써,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래관계 지표를 밝히고 있으며 또래 괴롭힘의 경험에 불안, 우울, 외로움, 낮은 자존감(Boivin & Hymel, 1997), 낮은 학업수행(Olweus, 1978), 등교·또래 거부, 제한된 수의 친구를 가지는 것(Hodges et al., 1997)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가해 청소년들은 친한 친구가 없는 또래들을 자신의 표적으로 삼는데, 이는 피해 청소년의 친구로부터 보복이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Hodge 등(1997)은 친한 친구를 가진 청소년이 괴롭힘을 덜 당한다고 하였고, Kochenderfer와 Ladd(1997)는 청소년이 다양한 방법(예, 교사에게 도움 요청, 가해학생과 직접 대면)으로 그들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문제는 자신의 친구들이 감정적인 문제가 증가되었을 경우에 청소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정을 어떻게 얼마나 제공하거나 받는가와 같은 우정의 질에 대한 연구와 연계하는 것이 실제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내 초등학교 5, 6학년(남학생 209명, 여학생 146명)과 중학교 1, 2학년(남학생 167명,

여학생 157명)으로 총 6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써 우정의 발달적인 과정상 상호성이 확립되기 시작하고 친밀감이 더욱 확고해지며, 또래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것은 수험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감이 우정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제외시켰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691명에게 1999년 9월 6일부터 11일 사이에 배부·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총 679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lt;표 1&gt;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679)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	376(55.4)	어머니의 연령	35세 이하	20( 2.9)
	여	303(44.6)		36 ~ 40세	362(53.4)
학 년	초등학교 5, 6학년	355(52.2)		41 ~ 45세	271(39.9)
	중 학 교 1, 2학년	324(47.8)		46세 이상	26( 3.8)
형제·자매 수 (조사대상자포함)	1명	41( 6.0)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56( 8.2)
	2명	475(70.0)		고 졸	224(33.0)
	3명	130(19.1)		전문대졸 이상	399(58.8)
	4명 이상	33( 4.9)			
출생순위	외 동 이	37( 5.4)	어머니의 학력	중졸 이하	89(13.1)
	맏 이	276(40.6)		고 졸	315(46.4)
	둘 째	303(44.6)		전문대졸 이상	275(40.5)
	셋째이상	63( 9.4)			
작년의 친구가 올해도 같은 반인 경우	1명도 없다	293(43.2)	아버지의 직업	무 직	19( 2.8)
	1명 있다	159(23.4)		단순노무직	17( 2.5)
	2명 있다	88(13.0)		서비스직	40( 5.9)
	3명 이상	139(20.4)		판 매 직	82(12.1)
부모님 생존유무	부모님이 모두 생존	657(96.8)		사 무 직	257(37.8)
	아버님만 생존	2( 0.3)		관 리 직	85(12.5)
	어머님만 생존	19( 2.8)		전 문 직	75(11.0)
	부모님이 모두 사망	1( 0.1)		기 타	104(15.4)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3( 0.4)	어머니의 직업	주 부	430(63.3)
	36 ~ 40세	101(14.9)		단순노무직	9( 1.3)
	41 ~ 45세	436(64.2)		서비스직	56( 8.2)
	46세 이상	139(20.5)		판 매 직	56( 8.2)

## 2. 측정도구

### 1) 또래 괴롭힘 척도

Crick과 Grotpeter(1996)의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임지영(1998)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상의 괴롭힘(relational victimization : 예, 나에게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이 나와 놀지 못하도록 따돌린다), 명백한 괴롭힘(overt victimization : 예, 아이들이 나를 때린다),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 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도와준다)을 받지 못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이다. Cronbach  $\alpha$  계수는 요인별로 각각 .80, .80, .85이었고,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86이었다.

### 2) 우정의 질 척도

Bukowski(1994)의 FQS(Friendship Qualities Scale)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궁정적인 측면의 우정으로써 교제(예, 방과후나 주말에 나와 내 친구는 서로의 집에 놀러간다), 도움(예,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친구는 나를 도와 줄 것이다), 친밀(예,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안정(예, 학교나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으로써 갈등(예, 나와 내 친구는 많이 다투다), 문제해결의 어려움(예, 싸운 후에 ‘미안하다’고 말하면, 친구는 여전히 화를 낸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이다. Cronbach  $\alpha$  계수는 요인별로 각각 .89, .61이었고,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81이었다.

### 3) 우정 지명 척도(Friendship Nominations Measure)

우정의 상호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급내에서 제일 친한 친구 3명을 지명하게 한다. 개인간 비

교를 통하여 상호적인 우정관계와 일방적인 우정관계를 구분한다. 상호적인 지명을 한 경우에 1점을 주고 일방적인 지명인 경우는 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많이 맺는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sub>WIN</sub>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빈도, 백분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t-test와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또래 괴롭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또래 괴롭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접적인 괴롭힘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박창한(199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괴롭힘을 더 많이 행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괴롭힘도 더 많이 당한다는 Stephenson과 Smith(1989)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Crick et al., 1996; 임지영, 1998)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표현양상 및 방향에 있어서 성별 외의 다양한 개인내·외적인 변인들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고, 연구자의 상이한 연구상황(실험·상관연구) 및 연구도구(직접관찰, 또래·교사·부모·자기보고)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명백한 괴롭힘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직접적인 형태의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연구 결과(Crick et al., 1996; 임지영, 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적

〈표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차이

독립변수(N)	종속변수	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	
		M	SD	M	SD	M	SD
성별	남학생(376)	1.57	.69	1.54	.69	2.86	.82
	여학생(303)	1.44	.55	1.27	.53	2.45	.79
	t 값	2.684*		5.792*		6.612*	
학년	초등학교(355)	1.59	.68	1.54	.70	2.67	.88
	중학교(324)	1.42	.56	1.30	.53	2.68	.78
	t 값	3.519*		5.005*		-.109	

\*P < .05

옹 행동으로 본다면, 남학생이 충동적 행동이 뚜렷하고 여학생은 억압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Crick et al., 1996; Whiting & Edwards, 1988; 권연희, 199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가 주로 여학생에게 더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만약 남학생에게 적합한 척도를 사용했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Boulton et al., 1992; Olweus, 1994; 이영미, 1989)와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또래 괴롭힘의 특성으로 인해서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저학년의 경우 상급생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급생에 의한 괴롭힘이 점차 배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학년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아동의 경쟁심 증가에 따라 4-6세경부터 증가하여 9-10세경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10세 이후부터는 비교적 안정되는 데(송명자, 1995), 본 연구 대상자는 이미 친사회적 행동의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연령때문으로 생각된다.

## 2.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정의 질

성별과 학년에 따라 우정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우정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여학생이 교제 즐거움, 친밀, 도움, 정서적 안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이은해(1999)의 연구와 여학생이 친밀감, 인정과 보살핌, 도움과 충고, 절친함과 안정에서 더 높다고 보고한 Bukowski, Cauz, Hoza와 Newcomb(1993), Parker와 Asher(1993)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언어구사능력이 우수하므로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촉진시킨다는 점과 여학생이 보다 온정적이며 애정적이고 감정주입으로 사회화된 반면 남학생은 보다 진취적이고 성취지향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로 생각된다.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정관계에 발생하는 갈등을 더 잘 해결한다는 윤미경(199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갈등은 우정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갈등의 정도보다는 갈등의 해결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상호성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상호 우정관계를 더 잘 맺는다는 연구 결과(Eder & Hallinan, 1978; Hansell, 1981; Parker & Asher, 1993; 신주혜, 1999)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

〈표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정의 질 차이

독립변수(N)	종속변수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		상호성	
		M	SD	M	SD	M	SD
성별	남학생(376)	3.61	.68	1.93	.69	1.54	1.00
	여학생(303)	3.90	.64	1.80	.65	1.86	.93
t 값		-5.748*		2.603*		-4.252*	
학년	초등학교(355)	3.73	.70	1.85	.69	1.61	1.00
	중학교(324)	3.75	.65	1.90	.65	1.77	.96
t 값		-.335		-1.044		-2.090*	

\*P&lt;.05

는 여학생이 친구상호간의 실제적인 반응양상에 있어서 독점적인 친구관계를 맺는 반면, 남학생은 자신의 친구관계에 개방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유사한 친구관계를 맺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에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12세와 20세 경에 공유와 도움의 정도가 일관된다는 연구(Lagai-pa, 197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하위 변인들의 발달적인 차이로 추측할 수 있는데, 즉 교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면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친밀감은 단계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줌으로(Hunter & Youniss, 1982)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우정관계를 맺는 동시에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우정관계도 또한 맺게 되는데, 이는 특정 학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친한관계일수록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우정의 상호성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더 많이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가 됨에 따라 점차 단짝친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는 Sullivan(1953)의 이론과 연령에 따라 친구 수가 증가하고 친구중 서로 지명한 단짝친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신주혜(1999)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중학교의 학급구조는 초등학교의 학급구조보다 동성의 수가 더 많다는 점과 친구 수를 학급내로 한정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성또래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는 시기임으로,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또래와의 상호성도 또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를 보면, 첫째,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관계상의 괴롭힘

〈표 4〉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상관관계(N=679)

또래 괴롭힘	우정의 질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		상호성
		M	SD	M	SD	
관계상의 괴롭힘		-.24**		.32**		-.14**
명백한 괴롭힘		-.23**		.33**		-.10**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		-.65**		.28**		-.24**

\*p&lt;.01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이 개별적인 위험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관계적인 문제를 가졌을 때 또래 괴롭힘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예, 언어적인 반응)의 형태도 갈등 해결에 중요하다는 Nelson과 Aboud(198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청소년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의 압력을 더 많이 느낄 때에도 사실상 친구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부추기기보다는 하지 말도록 충고하거나 말린다는 연구(Brown, Clasen., & Eicher, 1986)에서 볼 때, 또래와의 긍정적인 우정 관계는 또래 괴롭힘으로부터 피해학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명백한 괴롭힘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친구와의 친밀한 대화가 청소년초기동안 일어나는 많은 신체적·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어 보다 더 실제적인 적용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 자체가 친구간의 우정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행동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Berndt가 개발한 우정척도(Berndt & Miller, 1993)에는 친구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지원을 측정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를 보면, 첫째,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관계상의 괴롭힘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많을 경우는 학교에서 정서적, 도구적인 지원을 해주는 교제, 도움 같은 특성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하지만 친구들은 친구가 아닌 또래보다 그들의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갈등 해결시에 서로에 대해 특별한 헌신을 한다는 점(신주혜, 1999)에서 볼 때,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에게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명백한 괴롭힘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을 쉽게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폭력을 당하게 되면 맞대꾸함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또래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오원정, 1999)에서 볼 때,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 괴롭힘 상황의 대응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친구가 아닌 사람보다 친구일 경우에 갈등을 더 쉽게 해결하고 갈등 후에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연구(Hartup, Larsen, Stewart & Eastenson, 1988)와 청소년초기에 경쟁적인 상황일 경우 우정이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Mannarino, 1976)가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친구간에 경쟁이 일어났지만 서로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갈등을 보다 더 잘 해결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갈등해결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성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를 보면, 첫째, 상호적인 우정관계는 관계상의 괴롭힘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친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또래 괴롭힘을 감소시킨다는 Hodges 등(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괴롭힘의 피해는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맺은 청소년이 친구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보다 사교적으로 유능하고 협력적이며 욱울성향도 더 낮다는 연구 결과(Newcomb & Bagwell, 1995)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의 피해학생 유형에서 볼 때, 비공격적인 피해학생들은 일반학생만큼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지지만 공격적인 피해학생의 경우는 친구가 전혀 없다는 연구(Malone & Perry, 1995)가 있다. 하지만 또래상담자들이 또래들의 문제에 민감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격적인 피해학생들의 친구관계가 결코 해결되지 못할 과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우정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적인 우정관계는 명백한 괴롭힘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상호성을 동일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Youniss(1980)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친구가 자신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친구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 만약 한 친구가 또래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우울해 한다면, 이 감정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됨으로 자신의 친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은 더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고 보다 나아가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적인 우정관계는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우정관계를 강한 상호관계 즉 상호의존성, 자발성, 존중, 친밀감뿐만 아니라 어떠한 혜택을 친구와 함께 나누려는 시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Newcomb(1982)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보상을 얇게 되는 경쟁적인 상황일 경우에, 나누는 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은 친한 친구보다 덜 친한 친구에게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Tesser & Smith, 1980)에서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은 우정관계 이외의 상황적·질적인 맥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고, 친사회적 행동은 더 적게 받았다. 이는 남학생이 충동적 성향이 뚜렷한 반면, 여학생은 억압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학생의 괴롭힘이 관찰되기 어려운 교묘한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여학생들의 괴롭힘 형태에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초등 학생이 중학생보다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

힘을 더 많이 당했고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또래 괴롭힘의 위협이 학년중가에 따라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들의 특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괴롭힘의 위협이 어느 학년에서, 또한 그 학년의 어느 시기(학기초, 중, 말기)에 괴롭힘의 위협이 가장 심각한지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더 많이 경험하였고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더 적게 경험하였으며 상호적인 친구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화 및 성역할 형성과정의 차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상호간에 좀 더 독점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의 우정,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상호성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상호적인 친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초기에 단순한 우정관계를 넘어서 이미 보다 질적인 우정관계를 맺고 있고 학급내에서 자신이 경험한 또래관계가 일반적인 또래관계에까지 연계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적인 친구관계를 맺는 친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지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또래 괴롭힘과 우정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친구와의 긍정적인 우정관계와 많은 수의 상호적인 친구를 가지는 것이 사회기술 향상 및 실제적인 학교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의 우정관계에서 볼 때,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자신과 친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면 괴롭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갈등시에 보이는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면담을 거린다는 점에서 볼 때, 또래 상담자로써 상호적인 친구가 상담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이들은 일반적인 또래 상담자들보다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는 바램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우정의 이점으로서 동일 학급내의 친구가 다음 해에도 동일 학급으로 편성되는 것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안임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는 실제 학교생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급내의 피해학생과 그 피해학생의 친한 친구관계를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친구를 교실내로 한정하였으므로 친구의 범위를 학급외, 학교밖으로 확장한 보다 폭넓은 우정관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연희(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동진 역(1999). 바로보는 왕따 대안은 있다. 삼신각.
- 김미정(1984). 아동기 우정의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종미(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0(2), 17-33.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기정학회지 36(12), 1-9.
- 박신연(1989). 아동의 친구관계개념과 집단내인기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창한(1990). 아동의 가정환경특성에 따른 공격행동 유형 분석.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신주혜(1999). 단짝친구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 초등 학생 4학년과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심상문(1992). 중학생의 학급내 교우실태와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1989).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와 사회측정적 지위와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적 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0.
- 임정하·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63-175.
- 임지영(1998).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윤미경(1999).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1999). 동아리활동·토론문화가 '왕따' 없앤다. 2월 23일자.
- 홍재선(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Berndt, T. J.(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 Miller, K. A.(1993). Th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adolescents friendships. Unpublished manuscript, Purdue University.
-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 Boivin, M., & Hymel, S.(1997). Peer expectations and social self-perceptions :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35-145.
- Boivin, M., & Hodges, E. V. E., Bukowski, W. M., Vitaro, F.(1999). The Power of friendship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Buhrmester, D., & Furman, W.(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hrmester, D.(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101-1111.
- Bukowski, W. M., Gauz, C., Hoza, B., & Newcomb, A. F.(1993). Differences and consistency between same-sex and other-sex peer Relationships during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55-263.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71-484.
-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6, 367-380.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York : Wiley.
- Eder, D., & Hallinan, M. T.(1978). Sex difference in children's friendshi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237-250.
- Epstein, J. L.(1984). *Friend among students in schools :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factors*. N. Y : Academic press, Inc.
-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nsell, S.(1981). Ego development and peer friendship networks. *Sociology of Education* 54, 51-63.
- Hartup, W. W., La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1600.
- Hodges, E. V. E., Malone, M. J., Jr.,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wes, C.(1983). Patter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 1041-1053.
- Hunter, F. T., & Youniss, J.(1982). Changes in function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06-811.
-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7). Victimized children's responses to peers' aggression : Behaviors associated with reduced versus continued victim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59-73.
- LaGaipa, J. J.(1979). A developmental study of the meaning of friendship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 201-213.
- Malone, M. J., & Perry, D. G.(1995). Features of aggressive and victimized children's friendships and affiliative preference.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Mannarino, A. P.(1976). Friendship patterns and altruistic behavior in preadolescent males.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55-556.
- Nelson, J., & Aboud, F. E.(1985).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between friends. *Child Development* 53, 392-395.
- Newcomb, A. F., & Brady, J. E.(1982). Mutuality in

- boy's friendship relation. *Child Development* 53, 392-395.
- Newcomb, A. F., & Bagwell, C. L.(1995).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06-347.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ton, D. C. Hemisphere press(wiley).
- Olweus, D.(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7), 1171-1190.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arker, J. G., Rubin, K. H., Price, J., & DeRoiser, M. E.(1995).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96-161.
- Roland, E.(1989). Bullying : The Scandinavian research tradition, Bullying in schools. Stoke-on-Trent : Trentham Books, 21-32.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1981). Girlfriend, boyfriend :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Stephenson, P., & Smith, D.(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 and D. A. Lane (Eds.), Bullying in schools. Stoke-on-Trent : Trentham Books, 7-8.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 Norton.
- Tesser, A., & Smith, J.(1980). Some effects of task relevance and friendship on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582-590.
- Whiting, B. B., & Edwards, C. P.(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 The formation of social behavior*.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c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